

가주 홍역 17건, 지난해 전체 발병 넘어

전염성 강해 1990년대 대규모 발병 닮은꼴 긴장

전국에서 홍역 감염이 수십 년 만에 가장 빠른 속도로 확산되며, 한 세대 가까이 사실상 잊혀졌던 이 전염병이 다시금 심각한 공중보건 위기로 부상하고 있다. 캘리포니아도 올해 들어 이미 지난해 전체보다 많은 홍역 환자가 발생했다.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2025년 들어 지금까지 전국에서 1,227건의 홍역 감염이 확인됐다. 이는 21세기 들어 가장 많은 연간 감염 사례였던 2019년(1,274건)에 육박하는 수치다.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 1992년에는 2,126건의 감염이 보고되기도 했다.

■ 텍사스에서 시작 접경주로 번져

이번 홍역 확산의 진원지는 텍사스로, 현재까지 750건 이상의 감염이 보고됐다. 뉴멕시코(81건), 캔자스(80건), 노스다코타(28건), 몬태나(23건) 등 인근 주들도 감염이 퍼진 상태다. 중서부 및 중남부 지역에서의 급속한 확산은 대부분 예방접종을 받지 않았거나 접종 여부가 불확실

한 주민들 사이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당국은 밝혔다.

캘리포니아는 아직 본격적인 지역사회 전파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올해 이미 17건의 감염 사례가 확인돼 전년도 전체(15건)를 넘어섰다. 대부분 해외에서 감염돼 귀국한 사례들이다.

■ "단순한 어린이 질병 아니다"

캘리포니아 보건국의 에리카 판 국장은 최근 브리핑에서 "홍역은 단순히 발진이 생기는 가벼운 질병이 아니라, 심각한 폐렴이나 뇌염으로 발전할 수 있으며 치명적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홍역의 사망률은 500~1,000명 중 1명 꼴이다.

CDC에 따르면, 올해 미국에서 145명이상이 홍역으로 입원했고 이 중 상당수는 중환자실 치료가 필요했다. 또한 3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는데, 모두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사례였다. 특히 이 중 두명은 건강한 텍사스의 아동으로, 면역 질환 없이 홍역에 감염돼 사망했다. 이는 미국에서 2003년 이후 처음으로 발생한 아동 홍역 사망이다.

■ 전염성 극도로 높은 바이러스

홍역은 공기 전염성이 극도로 높아, 감염자가 자리를 떠난 뒤 2시간 내에도 같은 공간에 있던 사람에게 감염될 수 있다. CDC는 감염 예방을 위해 인구의 95% 이상이 백신 접종을 마쳐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캘리포니아는 2023-24학년도 기준으

로 유치원 아동의 96.2%가 MMR(홍역·볼거리·풍진) 백신을 맞아 전국 평균보다 높은 예방률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일부 카운티에서는 기준치에 미달하는 접종률이 보고되고 있다. 샌디에이고(94.8%), 샌버너디노(93.5%), 산타크루즈(91.8%), 커튼 카운티(90.7%) 등이다.

■ 1990년대 유행과 닮은꼴

1989~1991년, 미국은 한 차례 대규모 홍역 유행을 겪었다. 이 시기 약 5만5,000건의 감염과 130건 이상의 사망이 발생했으며, 캘리포니아에서는 약 1만8,000건의 감염과 70명이 사망했다. 이때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것은 빈곤층 부모들의 백신 접근성 부족이었다.

이후 연방정부는 1990년대 초 '어린이 백신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해 저소득층 백신 접종을 지원하고 있으며, 홍역 백신 2차 접종을 4~6세 사이에 실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 백신이 안전하고 효과적



홍역은 발열, 기침, 결막염, 전신 발진 등의 증상을 보인다.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보건당국은 병원을 직접 방문하기 전에 먼저 전화를 걸어 다른 환자들과의 접촉을 피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카이저 퍼머넌트 남가주 감염병 책임자인 엘리자베스 허드슨 박사는 "MMR 백신은 수억 명의 어린이에게 안전하게 접종된 검증된 백신"이라며, 백신이 홍역으로부터 자신과 지역사회를 지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보건당국은 향후 유행의 위험이 높은 지역에서는 생후 6개월 아기들에게도 조기 예방접종을 권장하고 있으며, 기존 접종 일정을 앞당기는 추가 조치도 검토되고 있다.

■ 관련 증상 및 예방

공중보건 전문가들은 "홍역은 예방 가능한 질병이지만, 예방하지 않으면 매우 위험해질 수 있다"며, 백신 접종과 적절한 대응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 초기 증상: 고열, 기침, 콧물, 결막염, 이후 얼굴에서 시작돼 몸으로 번지는 발진
- 전염 기간: 발진 시작 4일 전부터 4일 후까지
- 예방접종 권장: 생후 12개월 1차, 만 4~6세 2차 접종 / 고위험 지역은 생후 6개월부터 가능
- 주의 대상: 국제 여행자, 백신 미접종자, 집단생활자(홈스쿨링 그룹 포함)

사진=shutterstock





부엌과 화장실 리모델링 전문업체
캘리 키친 앤 베스
 라팔마에 쇼룸을 오픈했습니다.

무료 견적 / 무료 3D 디자인 / 20년 경력




부엌 리모델링 / 화장실 리모델링
캐비닛 / 카운터 탑 / 마루 / 타일 / 욕조
샤워 도어 / 창문 / 페인팅 / ADU

5438 La Palma Ave. La Palma CA 90623




714-206-7366
www.calikitchenbath.com
 Licensed, Bonded and Insured St. Lic. #1073686

